

마음 그릇에 티끌 담지 말고 '천년 보배' 담아야

수혜 스님 (운가사 주지)



'봄은 봄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의 가장 낮은 음성으로부터 온다.' 오세영 시인이 노래한 그 '봄'을 수혜 스님의 화사한 웃음속에서 발견했다. 스님에게 갑자기 닥친 이 꽃샘추위로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끼는 듯 했다. 실제로 취재중 만난 스님의 주변인들은 한결같이 1년 365일 수혜 스님은 항상 따스한 봄날(?)이라고 살포시 귀뜸한다. 무슨 의미일까? 이 의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풀렸다. 철순이 훌쩍 넘은 나이인데도 스님은 분신과도 같은 수유사회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보살피고 있었다. 바로 그런 스님의 자애로운 얼굴이 '봄'처럼 화사하다는 뜻이다. 그 '봄'에게 '봄날'의 지나간 얘기를 들으려니 스님은 "별로 잘나지도 못한 이 늙은이를 왜 찾아왔느냐"며 한사코 거절한다. 스님과의 인터뷰는 총 7층(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꽤 있는 수유사회복지관을 일일이 스님의 친절할 안내로 둘러 본 다음에야 가능했다. 스님을 알려면 이 복지관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경전을 통해 그 어떤 보시라도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답게 형편에 따라 법과 재물을 은혜롭게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꼭 부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마지못해 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증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물

“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답게
형편에 따라 베풀 줄 알아야 ”

과 법을 베풀어서 나와 중생의 마음 밑바닥까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간담심을 보리심으로 바꾸어놓아야 합니다.”

스님이 10여년전부터 복지사업에 뛰어든 것도 바로 이 보시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보조금 없이 복지관을 운영하느라 스님은 수행정진 하는 것 이상으로 고행의 나날을 보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복지관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스님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녁은 거의 국수나 라면으로 때웠다. 신도들과 그 흔한 외식 한 번 못했다. 외식할 돈이면 복지관 식구들에게 반찬하나 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 불자들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더욱 승화시켜 동체대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죠. 동체대비! 그것은 한 몸의 사랑이요, 동체대비에 입각한 보시는 내가 나에게 주듯이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시이기에 여기에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고 받는 물건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으니 많은 공

덕이 있을거라는 자랑 섞인 보시는 자비보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은 모자람이 있는 보시입니다.”

스님은 복지관에 갈때면 항상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아 준다. 보시가 해탈로 직결되려면 서로 동체라는 인식 아래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내가 너에게'라는 상대적인 생각, '내가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베풀다'는 차등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온전한 해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보시는 평등한 마음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오직 평등한 마음,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하죠. 하나의 법계 속에 살고 있는, 미래에 부처될 존재들끼리 기꺼이 나누어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만일 이렇게 평등심을 유지해

“ 동체라는 인식아래 평등
이뤄질때 보시는 해탈로 ”

보시한다면 부처님의 평등성지를 얻어 해탈할 수 있으며, 능히 보시바라미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무주상보시를 고집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동체대비의 보시가 되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도 더욱 안됩니다. 우선은 베푸는 일이 중요하니 베푸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보시한 것을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 해도 좋습니다. 결코 '무주상'을 강조하며 자랑을 막을 필요가 없죠. 오직 나와 남의 마음을 여는 보시를 끊임없이 행하다보면 모양을 내는 것은 언젠가 저절로 사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기 위해 복지사업에 전념하면서 스님은 정말 행복해했다고 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자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그들이 편히 쉬면서 행복해 할때 스님도 무한한 행복을 느꼈다.

"삶의 목적은 바로 행복입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쓰는 만큼 우리 자신의 삶 역시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달린 마음을 열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고, 이는 곧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주는 만큼 받는다는 것'. 이것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칙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사랑과 자비를 찾아내고 키워 나가는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는 평화롭고 온건한 것이지만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교리나 이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경제적 부와 안락함을 위해 선택한 딱딱, 즉 신념과 같은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타주의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또한 불교 수행의 최종 목표입니다.”

스님은 요즘의 세태를 안타까워했다. 우리 불자들은 사찰에 큰 불사를 한다고 하면 보시금을 잘 내는데 복지관 후원금 좀 내라던 고개를 돌리다는 것이다. 개신교나 가톨릭 등 다른 종교에 비해



수혜 스님은 1931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 45년 김천 수도암에서 상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51년 법어사에서 동산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58년부터 절불사,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 제방선원에서 40여년간 수행했다. 78년에는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96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운가사비원을 설립해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10여년이상 복지사업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장과 여성부 장관, 조계종 총무원장 등으로부터 다수의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봉사와 실천이 부족한 것. 또한 우리 불교계의 현실이라는게 스님의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우리 모두 '내마음'의 그릇 속에 눈앞에 보이는 하루의 티끌만 담지 말고 천년의 보배를 담도

“ 타인 행복 위해 마음 쓰면
자신의 삶도 풍요로워져 ”

록 합니다. 그 보배는 바로 보시하는 마음입니다. 베풀면서 마음을 두고 환희심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기에 맞게 열불하고 기도 참선하며 마음자리를 밝혀야 하죠. 틀림없이 이것이 각자의 인생을 보배롭게 만들어 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생에서 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나'의 등불이 되고 세계생생 나와 함께 일생을 밝혀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스님의 당부가 절을 나와 삶의 전쟁터로 들어온 한참 뒤까지 여운으로 남는 것은 체험의 깊은 뿌리에서 우리 내은 살아있는 법문이기 때문인 것 같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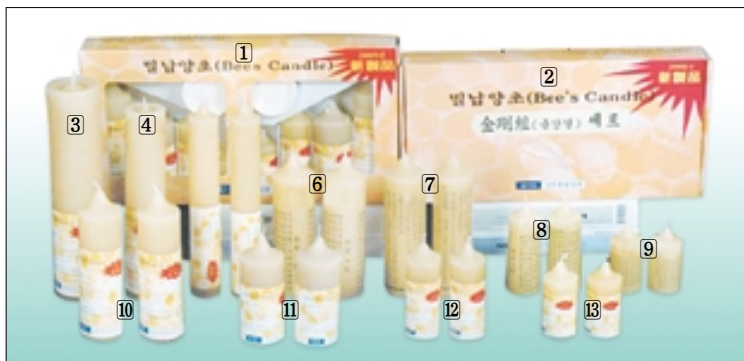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쑥양초, 식물성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밀납양초 (蜜蠟洋초)

- ①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 ②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 ③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④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⑤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⑥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⑦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⑧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약쑥양초

- ① 원기둥 7.4φ × 30cm ② 돈타레 5.6φ × 27cm
- ③ 약쑥향 1호 5.9φ × 20cm ④ 약쑥향 3호 4.7φ × 13cm
- ⑤ 약쑥향 4호 4.7φ × 10cm ⑥ 약쑥향 등초 3.1φ × 12.5cm



▶ 식물성 양초

- ① 식물성양초 원기둥 7.4φ × 29cm
- ② 식물성양초 돈타레 5.6φ × 27cm
- ③ 식물성양초 밀 대 4.6φ × 26cm